개교 기념 특집 마당

"일본의 동아시아 파

일본의 군사력

육상자위대
병력 : 약15만3백명
편성 : 5개 방면대 13개 사단
장비 :
전차—1천2백대
박격포—1천9백문
야전포—8백90문
고사기관포—1백40문
무반동포—3천3백70문
자주포차—6백60대
장갑차—7백20대
항공기—4백53기
그외
호크미사일—8개군
지대함SSM—1미사일—1개 연대

육상자위대의 단위별 정원 및 주요 장비의 정수 (1990년말 현재)

부대명	정원
소총반	약10명
소총소대	약30~40명
중화기포소대	약20~30명
유반두포소대	약10~30명
박격포 소대	약30명
보통과 중대	약200명
중량격포 중대	약100~200명
특과 대대	약300~400명
전차 중대	약100명
전차 대대	약300~500명
방면 헬리콥터대	약200명
대전차 헬리콥터대	약200명
제1헬리콥터단	약800명
제1~제13 각 비행단	약100명
제1 공정단	약1,400명
제1 포병단	약1,800명
제2 포병단	약2,000명
시설 중대	약100명
시설 대대	약400~500명
제1~제8 각 조사부과군	약700명

해상자위대
병력 : 약 4만6천명
편성 : 호위함대, 지방대, 잠수함대, 교육함공집단, 기타 장관 직할부대
함정 : 4백69척
호위함—62척
잠수함—15척
기뢰함정—38척
초계함정—8척
수송함정—10척
보조함정—3백5척
항공기:
P—3C 대잠 초계기—74대
P—2J 대잠 초계기—9대
USIA 구난기—8대
HSS—2B 대잠 헬리콥터—78대
SH—60J 대잠 헬리콥터—6대

해상보안청
직원 : 1만2천명
장비
경비용 선정—3백35척
잡선—1백71척
항공기—24대
순시선—10척

항공자위대
병력 : 4만4천8백명
편성 : 항공총대, 항공지원집단, 항공개발실험집단, 보급본부, 장군직할부대인 중앙항공통신군 등
장비 :
전투기—총 3백54대
C—130H 등 수송기—42대
조기경계기 E—2C—8대
정찰기—21대
구난 헬리콥터—34대
수송 헬리콥터—10대

군 사

Ⅰ. 일군국주의의 재도약

일본의 군사문야는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변화해 왔다. 2차대전의 종식과 함께 동북아시아는 미국의 헤게모니하에서 냉전논리에 따라 미국의 전력대로 움직였다. 북한의 공산화에 뒤이은 중국의 공산화는 이미 사회주의 종주국이 되어 전통적인 남한정책을 펴고 있는 소련과 함께 대평양을 자국의 영향력하에 두려는 미국에 위협적인 존재로 자리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정세변화에 따라 미국은 일본의 재군비화를 허락했고 그 이후 지원을 계속 해 왔다. 이와 같은 미·일간의 안보 체계를 시기별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1950~1970년대 말). 이 시기는 미·일 안보동맹관계의 기본구조가 형성된 시기로 1951년 9월 미·일 안보조약의 체결은 일본이 '자국의 방위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군비를 확장해 간다'고 규정하여 무장의 길을 열어 주었다.

2단계(1970년대 말~1980년대). 1978년 11월 양국은 '가이드라인'을 협약함으로써 양국이 공동작전을 수행하는 군사동맹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이를 계기로 자위대는 실전부대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공동연습훈련이 급격히 늘어났다.

3단계(1990년대 초~현재). 이 때는 탈냉전과 함께 미국이 세계전략과 동북아 전략에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시기이다. 미국은 극심한 쌍둥이 적자(재정적자, 무역적자)로 국방비 감축의 압력을 받게 되자 동북아에서 일본이 경제·정치적으로 갖는 위치를 고려하여 군사면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일 안보체제의 변화와 병행하여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국권을 발동한 전쟁과 무력을 사용한 위협이나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영구히 포기하며 이를 위해 육·해·공군 등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평화헌법'을 그들의 군사력 확대에 유리하게 적용되도록 '해석개헌'을 가해 왔던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은 자위대를 합법화해 갔으며 자위대의 무장을 확대해 갔다. 1970년대 사실상의 자위대 확대를 통해 비무장 중립론을 제압하고 1976년에는 '방위계획의 대강'이라는 국가전략의 체계화를 달성하였다. '대강'은 '전수방위'를 축으로하여 '한정적인 소규모 침공은 자력으로 대처하고 그 이상의 사태에 대해서는 미군에게 의존한다'는 방침하에 '기반적 방위력'을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1978년에는 미·일 안보체제의 본격적인 군사동맹화 계획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일본의 '전수 방위력'이 '지역 방위전략'으로 확대된 것을 의미했다. 자위대 존립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헌법을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해온 일본은 드디어 1992년 6월 자위대가 유엔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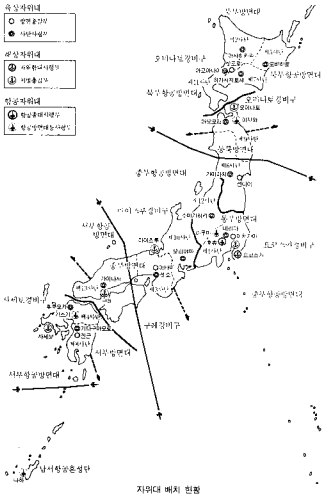
군사대국화와 한반도

유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인 PKO(Peace Keepping Operations)협력법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해 9월에는 캄보디아의 평화유지를 위하여 '국제적 공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외로 진출하는데 성공했다.

세계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일본은 계속해서 그에 합당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그와중에 터진 중동의 걸프전은 일본이 세계평화유지라는 명분으로 군사적인 해외진출을 가능하게 해주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국내와 국제적인 반발에 부딪혀 전쟁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그쳐야 했고 소극적인 참여에 대한 비난이 국내외에서 일자 계속적으로 군사력을 키워오며 외국으로의 진출 기회를 기다렸던 일본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일본은 PKO법안을 통과시켰고 해외로 진출하게 된 것이다.

Ⅱ. 일본 군사력 현황

흔히들 일본의 군사비가 세계 제3위 수준이라고 한다. 1991년 현재 일본의 방위비는 군인연금과 준군사비, 대외원군 등을 합산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방식의 방위비로 1인당 4백달러가 넘어 영국, 프랑스, 독일과 나란히 세계 3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비 역수는 GNP 1%로 한계 지워져 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이 13만 3천달러(한국은 1만 5천달러)를 유지하는 일본에서 그 역수는 상당히 큰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미국과 일본의 GNP가 6조달러 선으로 대등하게 되는 2000년에 이르면 일본이 GNP 1%선을 유지한다 해도 미국이 아시아에 투입, 배치 가능한 군사력을 양적으로 능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군사비면에서 일본은 미국의 약 1.75배, 군인 1인당 최소 1.2배, 배치병력에서 최대 1.5배에 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핵잠재력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본이 아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제까지 일본이 취해온 행동으로 보아 일본이 현재 핵무장을 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은 1993년 1월 세계각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로부터 플루토늄 1톤을 들여왔다. 일본 과학기술청의 '원자력개발 장기이용계획'에 의하면 2010년까지 약 90톤에 이르는 대량의 플루토늄을 비축할 예정이다. 신고한 플루토늄(핵무기 1기—플루토늄 8~13kg정도 소요)은 일본이 이 사실을 숨겼으면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원자력기구의 감시망을 벗어나 핵물질을 자의로 전용할 경우 그 사실이 공개될 때까지 다른 나라는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일본이 그것을 무기화 할 수 있는 기술은 어느정도인가. 미국의 한 사설기관인 국방군축연구소(IDDS)의 보고에 의하면 일본이 전자기폭장치 등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이미 확보 했으며 유사시 단기간에 이들 완성할 목적으로 일부를 이미 조립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핵보유국과 선진국들이 플루토늄을 생성할 수 있는 핵재처리방식(고속증식로)이 경제성, 유해성 등의 이유를 들어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추세에 유독 일본이 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Ⅲ. 한반도의 대응

이와 같이 일본이 자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하고 동시에 군사적인 영향력을 증대시키려 하는 것은 '신군국주의'를 추구해 나가려는 징후라 할 수 있다. '신군국주의'의 징후는 첫째 자민당내 뿐만 아니라 일본의 막후실력자 오자와 이치로를 중심으로한 연립정권을 탄생시킨 '신보수주의 자들'의 등장을 들 수 있다. 둘째는 헌법상 상징적인 존재로 되어 있는 천황에 대해 다시 정치적,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천황제를 강화하려는 시도이다. 세째는 비핵화로 가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달리 다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여 핵무기를 생산해 내려는 의혹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으로 볼때, 그들이 경제력, 정치력과 군사적 능력까지 동원하여 약화되고 있는 미국의 뒤를 이어 아시아에서 경찰국가의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리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가간 관계가 대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 국가의 지도하에 평온이 될 수는 있어도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바라는 평화의 의미는 아닐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 군사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일본이 동북아시아 나아가 전 아시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세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당연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거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들은 일본의 부상, 특히 군사력의 부상을 달가와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길은 두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국제 공조체제를 이루어 일본을 제하고 억제하도록 하는 다. 이 때 일본을 적대시할 요는 없지만 일본이 아시 평화를 깰 때는 일본에 불 음 줄 수 있는 세력역할을 야할 것이다. 다음은 한국 갖고 있는 통일 문제를 해 는 길이다. 한국의 통일을 하고 더 나아가 남북한 분 제가 유지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일본에게 남북통일은 협력안 상황이 될 수도 그러나 통일이 아시아의 를 유지하는데 일익을 담 게 될 때 통일은 일본의 를 견제하고 억제하는 중 역할을 할 것이다.

日…군비력 강화, 전술핵 보유 박차

동남아 공조체제 구축·남북통일 시급…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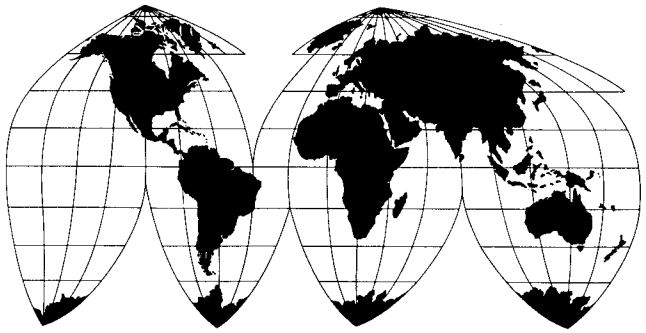
이 원 경

(반민족문제연구소 연구

경 제

〈한·일 경

시 기	일 본
2차세계대전이전	정부의 강력한 주도에 의해 공업화, 수산업이 중심을 이루는 중화학공업 지주회사 등장)
2차 세계대전 직후	2차세계대전의 패배로 미점령군 사령 해체독점금지법 제정→대주주를 위시 추방, 노동조합의 활성화 및 농지개혁 의 전환시도로 경제민주화 고조)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인해 국제분업주의에 입 업육성(철강, 화학, 자동차, 기계, 전 화학공업제품 수출을 위한 수출입 은 독에 대한 대처를 위해 관세및 제형태 정비(중화학공업의 급성장 초래)
1960년대	일본경제의 급성장 시기→여타국가들 방 압력 초래→일본은 대처 방안으로 비투자 조정 및 공동투자 등의 유도를 의 확대유도, 기술개발 및 마케팅력 적 제편성)
1970년대	오일쇼크와 엔고현상으로 인해 자원 다 강, 석유화학및 알미늄 공업제한→자 자동차, 전자산업 등 조립가공업 육성
1980년대	선진국간 개발경쟁시대도래→일본정부 업정책을 정보산업등 극히 제한적 산 역점을 기술개발 조정에 두어 민간기 기술개발 장려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당신을 위해

I CAN DO IT

외국어 교육의 선구자

파고다외국어학원 압구정 3442-4000 종 로 274-4000